

눅 17:1~19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2025년 추수감사절 11월 16일

1. 예수께서는,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부정의 부정을 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만약 있다면, 피하는 게 상책이지요. 더 중요한 건,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실족케 하는 일의 주범이 되는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하겠지요.
2.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는 화라고 하셨습니다. 실족한 자가 아니라 실족케 하는 자입니다. 그는 실족한 당사자보다 더 큰 낭패를 보지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실족한 자와 실족케 한 자 중에, 누구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3. 이 말씀 전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청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지요.
4. 이 이야기와 오늘의 본문을 연결해 보면, 음부에서 고통하는 부자가 실족한 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실족케 한 자는? 그가 지옥에서 고통하는 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나사로? 아니면, 그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 그 실족한 자의 처절한 청원에 귀를 막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을 실족케 하거나, 혹 그 실족을 방관한 자?
5. 이 일과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뜯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이 명령을 어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나사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지요. 주님은 일곱 번 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일흔 번 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부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안고 있던 나사로를 일곱 번이라도 다시 돌려보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6.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부자를 실족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를 살려 보내건, 또 어떻게 하든, 넘어지는 그 부자 형제를 다시 세울 방도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 연자맷돌을 달고 물 속에 들어가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주님은, 부자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왜? 그가 실족하는 자이니까! 그런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교회는 가난한 나사로보다는 회개하는 부자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부자가 교회에 나오고, 그래야 또 교회가 연자맷돌을 매고 바다에 빠지는 것을 피하니까!
8. 실족이란, 문자 그대로 발을 헛디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을 빼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재수가 좋으면 하필 넘어진 곳이 음부이기도 합니다. 부자처럼 지옥불에 떨어지지요. 예수께서 이것을 “**없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누가 떠밀지도 않았는데도 그 부자처럼 스스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9. 우리 옛날에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시리 오해라도 사게 된다면, 목에 돌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쥐리히 리마트 강에 5백년 전, 세례받던 재세례파 형제들이 수장 당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개혁교회였습니다.

10.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수하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일곱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면, 그때마다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왜? 부자가 실족하면 어떻하냐? 너가 오해받고 범인이 되면, 연자맷돌이기 때문에!
11. 복음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의 제자들이라는 사도들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눅 17:5)”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요청이겠습니까? 연자맷돌을 피하기 위한 묘수를 달라는 소립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12.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부자를 실족케 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방도를 말하지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그 시험이 주는 징벌에서 벗어나거나 보호할, 그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13.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믿음, 혹은 그 믿음의 증가란, 실족하지 않거나, 또는 실족케 하지 않을 능력, 또는 그 자리에 앉지 않을 능력인 것입니다. 혹 모자끈이라도 고쳐 매다가 백발백중 오해받을텐데, 그런 오해를 피할 능력! 다른 말로, 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어도, 누구하나 나를 도둑으로 몰지 못하게 할 능력!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결국 굴러오는 연자맷돌을 피하는 요행수를 말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14.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능력으로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는데, 그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을 처사같은 것이지요. 즉, 그런 자리를 피하는 처신, 그걸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는 지식, 또 거기에는, 미리 떨어지지 않도록 누구든지 끝까지 용서하는 도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5.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진짜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란 단어가 있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믿음이 존재한다고 말해야 하나요? 아마 그런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런 것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다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일은 없다는 소리지요.
16. 이 말씀은, 그런 능력, 겨자씨 한 알 만큼으로, 뽕나무를 물 속에 심거나, 혹 그 반대로 바다에 빠진 연자맷돌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는 소립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있는 믿음은 사람에게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말로, 죄지은 형제가 스스로 회개하는 것도 드문데, 그런 자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 일곱번 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한다는 건,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 해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소립니다.
17. 이것이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냐면, 7 절에 종이 나오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사례하는 것처럼 힘들다는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 만큼 힘들지요. 종이란 당시 로마의 노예를 말합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왔거나, 죄인으로서 팔린 자들입니다.
18. 그가 평소처럼 식사준비를 하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사례비를 줍니까? 월급? 그렇지 않지요. 노예는 노예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연민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가 노예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팁을 주는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직 하지 못한 것을 찾아서 호통을 칠 따름이지요. 때리거나 밥을 굶기는 것은 당연하구요.

19.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사례하는 것 만큼이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 부자의 집에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일이! 다른 말로, 그렇게 해서 겨자씨 한 알 만큼의 믿음이 생기는 일이!
20. 그렇게 어려운 일임을 확증시켜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한 촌에서 만난 열 명의 문둥병자 사건입니다. 사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어느 한 촌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예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인 예수가 사마리아와의 경계지대를 지나가다니! 게다가 열 명의 문둥병자 집단까지 만납니다. 주식이 오를 확율보다 더 희박하지요.
21. 그러면 믿음이란 것이 그렇게 확률적으로도 희박한 것인가? 사실 그보다 더 희박하지요. 그러나 없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음을 받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일이지요. 그것도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했습니다.
22.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일입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사례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 부자의 집에 돌려보냈다는 것이지요. 큰 구렁이 그 사이를 가르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건너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줄줄이 다 바다 속에 넣었는데, 물 위에 다시 떠오르는 자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23. 이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그 겨자씨 한 알 만큼의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께서 그에게 겨자씨 한 알 만큼의 믿음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야 그가 예수 앞에서 물러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야 비로소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이 짧은 순간 주고받은 예수와의 그 교통!
24. 믿음은, 말 그대로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불치병에서 풀어헤쳐서 건강하게 하고, 그의 잃어버린 살점들과 상처들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물 속에 빠진 연자맷돌도 떠오르게 하는 능력, 뽕나무를 다시 그곳에 심을 능력!
25.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사마리아 이방인 문둥병자가 처음부터 갖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예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또 그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선포하여 주심으로,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신뢰를 주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사로? 아브라함? 예수와의 이런 교통이 있는 자가 되어야지요. 예수께서 말씀을 명령하고, 또 그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는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7.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명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실 그 예수!